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박윤재*

1. 머리말
2. 그동안의 성과들
3. 몇 가지 전망
 - 1) 경계흐리기
 - 2) 영역의 확대
 - 3) 이론화의 시도
4. 맺음말

1. 머리말

대한의사학회의 학회지 『의사학(醫史學)』이 창간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1992년 창간된 『의사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사 연구의 주요한 발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21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아직 전문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의사학』에 게재된 논문들은 지역으로는 동서를, 시기로는 고금을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개항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시기, 즉 한국 근대와 관련된 연구는 97편, 전체 논문 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반에 가까운 논문들이 한국 근대 의학사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려준다.

『의사학』에 많은 한국 근대 의학사 논문이 게재된 배경에는 발간 주체인

* 연세대학교 의학과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20-752)
전 화 : 02-2228-2473 / 팩스 : 02-393-1885
이메일 : wowbona@hanmail.net

대한의사학회가 서양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분과 학회이고, 서양의 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기가 근대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1대 회장인 이영택 이래 서양의학 전공자들이 대한의사학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런 추정엔 신빙성을 높여 준다. 대한의사학회가 재건된 해가 1991년이요(기초의학협의회, 2008: 544-8), 이후 각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사 연구의 토대가 될 의사학 관련 학과를 신설 혹은 강화해갔다. 1994년에 아주대 의과대학에 의사학교실이 신설되었고, 서울대 의과대학 의사학교실에 새로운 전임 교원이 부임하였으며, 1996년 3월에 연세대 의과대학에 의사학과가, 1999년에 인제대 의과대학에 의사학 및 의료윤리학 교실이 설치되었다. 이들 관련 학과들이 대한의사학회를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사 연구가 『의사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의사학』이 창간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는 세계적 규모의 사회변동으로 인해 학문의 경향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 1991년 사회주의 소련의 해체는 계급이나 체제와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기존 역사학 연구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정치·경제사를 넘어 소재가 사회·문화 영역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 의학사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고통인 질병과 부상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학의 변경을 넓힐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았고, 관련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의사학』 발간 이후 성장해간 의학사의 성취들을 공간으로는 한국, 시기로는 근대에 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정리의 대상은 우선 『의사학』이지만, 다른 공간을 통해 발표된 연구들도 포함하였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의학사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주목되는 몇 가지 성과를 언급하였다. 그 성과들은 의학사 연구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의학사가 복합 학문인 까닭에

1) 시기상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즉 개항 이후부터 식민 지배가 종식되는 1945년까지 의학의 역사를 연구한 글들을 정리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찰하는 시기가 한국 근대를 일부라도 포함한 경우 최대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가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 글이 포괄하지 못한 연구들이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의사학』에 게재된 97편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2. 그동안의 성과들

1960년대 한국의학사 연구의 두 거두인 미키 사카에와 김두중은 자신의 연구를 총괄하는 저작들을 출간하였다(三木榮, 1963; 金斗鍾, 1966). 지금까지도 한국의학사 연구의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책의 말미에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만들기도 하였던 한국 근대 의학의 역사를 제도사적으로 정리하였다. 잠시 주춤했던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는 1970-80년대에 접어들어 선교의학을 대상으로 진전되기 시작하였다(李春蘭, 1972; 李萬烈, 1986; 李光麟, 1986). 하지만 한국 근대 의학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1989년 이만열을 필두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하는 『국사관논총』에 한국 서양의학 수용사를 연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 서양의학이 수용된 경로를 크게 네 가지, 즉 선교사, 한국인, 일본, 기타 서양으로 구분하였다(李萬烈, 1989; 金亨錫, 1989; 金承台, 1989; 趙英烈, 1989).

현대 한국의 의학체계가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그 체계의 기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사학』에 게재된 첫 논문이 「서양의학교육의 효시」라는 점 역시 의사학계의 초기 관심이 한국 근대에 있었음을 알려준다(부록 1 논문, 이하 논문의 숫자만 적음). 이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서양의학의 수용 경로가 체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양의학이 외래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타 서양제국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서양의학의 수용 경로는 선교사와 일본으로 크게 이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용의 경로가 분류됨에 따라 이후 연구는 경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교육, 병원, 인물 등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교육과 관련하여 1990년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연구자는 기창덕이다.

그는 타계하기 바로 전 해인 1999년까지 『의사학』 거의 매 호에 한국 근대 의학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였다(1; 4; 6; 10; 12; 13; 15; 18; 20; 27; 32; 34). 그의 논문들은 1995년 『한국근대의학교육사』에 일단 포괄되었고, 1999년에는 연표와 자료를 모은 『한국개화기의문화연표(韓國開化期醫文化年表)』가 발간되었다(奇昌德, 1995a; 奇昌德, 1999).²⁾ 비록 저작을 먼저 출간하기는 하였지만, 자료와 연표를 뒤이어 발간한 그의 모습에서 미키 사카에와 김두종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서양의학 교육 일반을 개괄하는 것이었고, 식민지 전 시기를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이루어질 한국 근대 의학교육사 연구의 궤도를 부설하는 의미를 지녔다.

병원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된 병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었다(37; 42; 43; 51; 56; 58; 59; 61; 85; 신동원, 1995; 주진오, 1997; 이경록 외, 1998). ‘최초’라는 관용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제중원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웠지만, 관심을 증폭시킨 다른 배경에는 소위 ‘뿌리논쟁’이 있었다. 연세대학교의 뿌리를 이루는 제중원에 대해 1980년대부터 그 기원을 문제 삼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따라 역설적이게도 역사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중원 연구가 활발하게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제중원에 대한 연구는 명칭이나 개원 일자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부터 성격에 대한 논의까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의사학』에 게재된 제중원과 관련된 주요 논문들은 박형우의 『제중원』으로 정리되었다.⁴⁾

제중원에 던져졌던 관심은 선교의학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17; 27; 60; 72; 84; 85; 86). 이들 연구는 제중원에서 시작된 선교의학이 하나의 중심을 넘어 다수의 중심으로, 중앙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활동에 대한 정리를 넘어 의료선교

2) 기창덕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이주연이 『醫史學』 9권 1호의 素岩 기창덕 일대기에 소상히 밝혀 놓았다.

3) 소위 ‘뿌리논쟁’의 경과과정에 대해서는 여인석, 박형우, 「뿌리논쟁의 경과」, 『延世醫史學』 2-1, 1998를 참조하시오.

4) 박형우, 『제중원』 (몸과마음, 2002). 이 책은 2010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1세기북스에서 재출간되었다.

사들이 가진 인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003년에는 한국 선교의학의 역사를 집대성한 이만열의 『한국기독교의료사』가 출간되었다(이만열, 2003). 이 책은 개항 이후 해방에 이르는 시기 동안 이루어진 의료선교사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는데, 단순한 정리를 넘어 복음 전도와 치유 활동의 관계를 고민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의료의 역사는 의료를 기독교 전도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해나가는 사상적 발전의 과정이었다.

관립 의학교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19; 90; 李忠浩, 1998; 황상의, 2000). 하지만 사립 의학교에 비해 관립 의학교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관립 기관을 분석보다는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관립기관들은 식민지시기 동안 식민 지배를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한국사의 입장에서 그들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했다. 1876년부터 1905년까지가 한국의 자주적 의학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난 시기라면 식민지시기는 그 노력이 좌절되고 일본에 종속된 비주체적인 의학체계가 수립된 시기라는 문제의식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의 관립 의학이 현대 한국 의학의 한 수로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나아가 식민 지배를 통해 형성된 의학체계가 현대 한국 의학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관립 의학교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일본의 한국 지배를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설립의 의미나 성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성제대 의학부가 식민지 의학체계에서 담당할 역할, 졸업생들의 활동과 의미 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만에서 제국과 의학의 관계를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범연추(范燕秋), 2007).

식민 지배가 ‘기념’할 대상은 아니지만, ‘기억’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기억을 위한 노력은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식민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노력

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7년 대한의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어난 소위 대한의원 논쟁은 기관의 연속성이라는 법리적인 차원을 넘어 식민성과 근대성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었다. 제중원 논쟁이 한국의학사의 연구 온도를 높인 것처럼 대한의원 논쟁도 한국의학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할 때 의학사의 주요 연구 대상에서 인물은 빠질 수가 없다(5; 21; 27; 33; 35; 40; 52; 54; 55; 63; 68; 69; 70; 71; 74; 78; 80; 81; 84; 88; 91; 94; 96; 이광린, 1992; 愼蒼健, 1999; 신창건, 2005; 박윤재, 2007c; 김성은, 2007). 단일 주제로는 『의사학』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한 개인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던 인물사 연구는 점차 그 개인이 가진 사회와 관계, 인식과 사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연장되고 있다. 그 노력은 의학이 사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 중 하나였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가, 나아가 역사학의 주요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각 개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형성한 직업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62; 김정화, 이경원, 2006; 박윤재, 2007b). 현재까지는 근대적 의학체계의 중심에 있던 서양의학자들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 고찰들은 의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면허제도의 성립, 식민권력 그리고 의료소비자와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미 대한제국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의사들을 근대적 직종으로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의사들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식민지시기 동안 의사들은 식민권력이 설정한 구도 아래 성장하였고, 독립운동에서 점차 계몽운동으로 자신의 영역을 한정시켜갔음도 밝혀졌다. 이 연구들은 단순히 서양의학자들이 형성되고 발전했다는 형태에 대한 서술을 넘어 성장의 배경과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질병에 대한 연구도 의학사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3; 7; 11; 22; 25; 83; 93; 97; 신동원, 1989; 박윤재, 2000; 김미영, 2006; 박윤재, 2008; Sihn, 2009). 질병 중에서도 주요한 고찰 대상은 전염병이었다. 전염병이 개인의 질병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에 접어들어 전염병의 실체가 밝혀지고 방어를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의학의 발전과 역동성을 밝히는데 전염병은 주요한 주제였다. 연구들은 초창기에 두창, 콜레라 등 주요 급성전염병에 주목하다가 점차 만성전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의사학』의 논문들은 질병의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질병 자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학회에 많은 의료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에 대해 역사학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적 파장 때문인데, 질병을 배제하고 사회에만 착목하게 될 경우 사회의 대응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는 질병과 사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부여할 것이다. 2009년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한국 전염병의 역사를 개괄한 통사인 『한국전염병사』를 출간하기도 하였다(大韓感染學會, 2009).

서양의학의 수용과 관련하여 경로가 강조되다 보면 주체의 문제가 사장될 가능성이 있었다. 서양의학이 ‘수용’이 아닌 ‘이식’의 관점에서 분석될 가능성이었다. 신동원의 『한국근대보건료사』는 주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신동원, 1997). 그는 서양의학의 수용과정에서 조선정부가 보인 자주적 노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손님이 아닌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식민 지배 이전, 근대적 의학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시도한 의학적 성취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개화파의 위생론, 위생계몽운동의 모습 등 한국인들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던 의학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그려졌다. 그의 연구는 1960년대 이래 한국 역사학의 성과인 내재적 발전의 의미를 의학사를 통해 밝히는 성과였다.

식민지시기와 관련해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가 가지는 강압적인 성격을 밝히는 연구들이 제출되었다(44; 57; 90; 박윤재, 2005; 정혜경·김혜숙, 2005). 이 연구들을 통해 식민 지배가 의료제도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위생은 일제가 강압적인 방역·청

결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자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인들은 위생사업에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식민 지배를 실감하고 수용해갔다. 나아가 위생사업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 지배의 노골성을 희석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가 수행한 위생사업은 주체가 이민족이었기에 한국인들에게 더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점도 사실이다. 그 비판은 근대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식민지는 역설적으로 근대가 가지는 통제적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의사학』에 발표된 체질인류학 연구들은 제도의 정리를 넘어 식민 권력이 의학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사 연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길을 예시하고 있다. 위생사업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식민화라면, 의학 연구는 이념적 차원에서 식민 지배에 이바지하고 있었음을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의학 연구에 대한 분석은 일제의 한국 지배가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가 서양에서 발전한 근대 서양의학을 지배의 주요 도구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식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학 연구는 일제의 한국 지배가 다른 서양의 식민 지배와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밝힐 수 있는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식민 지배와 관련하여 주체를 세분화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도 그렇듯이 흔히 ‘일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궁극적으로 타협해나갔다. 예를 들면, 통감부의 한국 지배정책을 의학의 측면에서 보조한 동인회의 경우 한국의 식민 지배를 주도한 군의(軍醫)들과는 다른 성격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23; 박윤재, 2003). 동인회는 통감부가 ‘문명화’를 기치로 진행하는 한국의 식민화 작업에 경무고문의(警務顧問醫)로 참여하며 적극 협조하였다. 하지만 총독부는 그들 대신에 군의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 동인회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중국에 전념하게 되었다. 통감부시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의학의 측면에서 관찰시키고자 했던 주체가 교체된 것이었다. 공식적인 식민 지배 기간인 36년 동안에도 지배의 주체와 내용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의학사는 그 변화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만일 지배의 주체를 일제로 단일화시킨다면 저항의 주체 역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근대사는 일제에 대항하는 한국의 주체들이 삼일운동을 계기로 분화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서로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남북 분단의 기원은 이미 식민지시기에 연원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다. 의학의 측면에서도 서양의사와 한의사의 일제에 대한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었고, 의료 소비에서 차이가 있는 도시와 농촌이 지배정책에 같은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의학사는 같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위치와 공간에 따라 갈라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배의 다양성에 착목하면서 지배와 저항, 나아가 해방의 문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해나가야 할 것이다.

식민 지배를 연구한 글들은 지배의 강압성과 관련하여 경찰의 위생 개입을 지적하고 있다(38; 97; Park, 2005; Park, 2010). 이 연구들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격리하였고, 치료효과를 과신한 나머지 백신을 남용하였다. 의료인들이 일방적인 위생행정에 저항하기도 하였지만, 경찰 위주의 위생행정은 식민지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지속되었다. 강압성은 당연히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들은 한국인들이 도망이나 은신 같은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자신들이 직접 전염병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가 저항의 내용을 밝히는 작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저항의 성격을 밝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방역과정에서 즉자적인 반응을 넘어 그 효과를 인정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제의 의료정책 중에서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수용해갔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거부와 수용이 일제의 지배정책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구들은 한국인들이 일제의 의료정책에 대응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갔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가지는 현실성과 의미에 대한 대답도 필요하다. 그 대답들은 최근에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성’을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이 수립하려고 했던 의학체제와 식민지의 그것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나타나고 있다(박윤재, 2004; 박윤재, 2007a). 이 연구들은 두 체제가 서양의학을 수용하는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태도, 민간을 배제한 경찰 위주의 강압적 위생행정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의 역사학이 여전히 민족주의의 강한 자장 아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권력을 민족이 아닌 체제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노력은 소중하고 필요하다.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의학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분석들도 제출되고 있다(조형근, 1997; 이승원, 2003; 고미숙, 2004; 김윤성, 2004; 김예림, 2005). 근대 국가가 국민(國民)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할 때 ‘국민 만들기’에 의학이, 특히 위생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들을 통해 한국인이 자신의 신체를 개인이 아닌 집단의 것, 특히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며, 서양의학의 시선 아래 한국의 불결함이 부각되면서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사업의 필요성을 한국인들이 인식해갔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연구들은 국가의 지배와 관련하여 근대가 가지는 규율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면서 규율이 개인의 신체에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국가권력이, 특히 식민권력이 자신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어떻게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고 훈육시켰는지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근대가 개인의 신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종의 규제이자 구속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근대는 전통으로부터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 혹은 신민(臣民) 만들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는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사실(事實)에 입각하여 담론을 만들기보다는 담론을 통해 사실을 해석하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서양의 근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구체적인 보폭이나 속도는 달랐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위생이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국, 중국 등으로 확산된 개념이라고 할 때, 나아가 위생이 서구적 개념의 번역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의 한국화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현재 의학사의 성과들은 그 구체성을 밝히는 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더 축적된다면 서양의 역사에서 도출된 규율과 같은 개념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 몇 가지 전망

1) 경계흐리기

『의사학』이 서양의학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결과이겠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과 근대의 관계를 계승보다는 분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근대와 근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다. 서양의학의 수용에 의해 한국의 의학체계가 격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의 주체는 과거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근대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적 근대의 한국적 변용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기존의 연구가 단절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연속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한 민족적 연속성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단절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연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동원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발전을 분절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신동원, 2000). 그의 연구는 서양의학의 최대 성취로 간주되었던 우두법과 전통적인 두창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두법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전통과 근대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연속 선상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에게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방법이 우두법이 아니라 인두법이라는 주장은 지금 우리가 우두법이 아닌 인두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낳는다. 인두법의 시대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경계는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나아가 그의 연구는 근대가 전통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적어도 한의학은 두창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음에 반해 서양의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국에서 우두법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지식영이 우두법 수용의 한 경로만을 대표할 가능성 그리고 그 경로를 유일한 것으로

만든 일제의 시도를 서술함으로써 역사가 정치에 의해 활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전통과 근대 사이를 흐리는 노력은 다른 분야로 넓혀질 필요가 있다. 의학의 측면에서 방역은 근대와 전통을 가르는 가장 큰 경계선인데, 그 경계가 흐릿하다면, 다른 분야의 경계는 더 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은 전통에서 근대를 관통하는 의학이라는 점에서 시기에 따른 분절적인 분석과 함께 각 시기에 이루어진 노력과 성과들이 다음 시기에 어떻게 변형, 계승되는지 연속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사학』에는 한의학의 유파를 정리한 글이 발표되었는데(73), 분절보다는 연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2) 영역의 확대

의학사가 ‘승자에게 바치는 헌사’가 아닌 ‘과거에 대한 성실한 기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주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당시 일상 속에서 소비되던 의료 일반에 대한 관심도 한 예이다. 19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병원은 소비자들에게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었다. 한국인들은 비주류 의료를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돌팔이나 약장수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치료 효과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그 의료들은 한국인의 일상을 접하고 있었고, 따라서 의학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한국인의 과거가 풍부하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주목받는 주제 중의 하나로 근대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던 한의학을 지적할 수 있다. 『의사학』을 포함한 여러 공간을 통해 한국의 근대적 의학체계의 한 부분을 형성한 한의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5; 21; 26; 41; 49; 64; 70; 73; 79; 87; 여인석, 1999; 신동원, 2002; 신규환, 2007; 慎蒼健, 2007). 대한제국에서 정통의학으로 인정하려 할 만큼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한의학에 대한 고민 없이 근대적 의학체계의 형성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를 의학의 측면에서 천착할 때

서양의학의 성장 못지않게 한의학의 약화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나아가 식민지시기 동안 한의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계기를 제공받았음도 사실인 만큼 근대 한의학에 대해 복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관심 범위는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을 넘어, 다른 의료분야, 예를 들면, 치의학, 간호학, 한약업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사학』에도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었으며, 각 분야의 제도적인 변천을 정리한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31; 67; 77; 기창덕, 1995b; 이꽃메, 2002; 신재의, 2004; 이주연, 2006). 의사가 의학체계 운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한의사나 간호사를 예로 들면, 그들은 숫자로 볼 때도 소수자가 아니고, 의학체계의 운영에서도 주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사학』에 게재된 한의사 이제마, 산파이자 간호사인 한신광에 대한 연구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21; 70; 74).

나아가 이제 연구는 의료의 대상이었던 환자, 소비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79; 박윤재, 2009). 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용을 분석하거나 지방의 의료 소비를 분석한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동안 주류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던 대상에 대한 연구는 격려되어야 마땅하다. 1980년대 이후 일반 역사학에서 역사 발전의 주체 문제를 천착해온 점을 고려할 때, 그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근대 한국 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한 세력들의 대립과 갈등, 연대와 협력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대상의 의미를 실제보다 강조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애정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대상을 다른 대상, 나아가 전체적인 상황과 끊임없이 비교하여 고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도 그렇듯이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의학에 일방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필요할 때 가질 수 있는 의료를 소비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지향이나 문화적인 경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을 치료해줄 수 있

느냐의 여부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의료가 무엇을 줄 수 있었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인 고려이다.

의료 소비를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 특히 농촌이 전통이나 비주류 의료를 의식적으로 고수하려 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기적으로 변화는 보이지 않는지, 변화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답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질적인 측면에서 의료 소비의 특징이 도출된다면 의료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론화의 시도

『의사학』의 발간은 충실한 역사 정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0년이 흐르면서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 정리를 토대로 일정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 의학사를 연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의 개발이다.

최근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한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고민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의학에서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외국에서 촉발되었다(松本武祝, 2007; 辛圭煥, 2007; 이이지마 와타루, 2008). 이 논의들은 서양의학에 기초한 위생·의료제도의 확산 내용을 서술하면서 근대화와 구분되는 제도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위생·의료제도의 정비·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반드시 전통 한의학이나 민간의료의 소멸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염병의 추이와 관련하여 두창이나 콜레라의 약화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의 증가를 포착함으로써 근대화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아직은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식민지 근대성의 개념을 완성할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나아가 근대성 자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식민지시기가 국

가 권력의 측면에서 그 전후 시기와 상이한 체제였음에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성에 집착할 경우 근대화라는 큰 흐름을 간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흐름에서 볼 때 해방 이후의 역사와 식민지시기를 연결시켜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가 가지는 단절과 연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식민지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의학체계의 구성이나 지향에서는 변화가 있는 점 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헤게모니에 대한 고민도 이론화를 시도하는 노력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정근식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를 헤게모니 갈등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정근식, 1996). 이 연구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의료선교사와 식민 권력의 상이한 접근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이어졌다(정근식, 1997a; 정근식, 1997b). 한센병에 대한 연구들은 두 권력이 모두 환자를 사회적 타자로 규정하고 격리 수용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강제적 수용인가 자발적 수용인가, 동의와 복종을 유도하는 정상화가 수반되는가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식민지시기가 어느 하나의 권력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다른 권력들이 상호 대립하고 협조하는 시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식민지를 더욱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선교의학의 성격, 궁극적으로 선교의학의 근대성에 대한 고민들도 제출되고 있다(60; 66; 72; 86; 조형근, 2009). 이 연구들은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태도, 식민 의학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선교의학의 특질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선교의학은 근대의학이라는 선진(先進)의 관점에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한국의 의학을 후진적이라고 규정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인 치유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연구들은 선교의학과 일본의학이 한국의 ‘문명화’ 혹은 ‘근대화’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통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근대 한국 의학의 두 수로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선교의학이 서양에서 형

성된 근대성의 원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선교의학이 일본의학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교의학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근대성에 착목해온 학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만, 식민 의학 자체에 대한 천착, 그 원형인 일본의학에 대한 천착이 선교의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느 한쪽에 대한 편향은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나아가 이론화의 시도가 구체적인 실증의 축적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증의 뒷받침이 부족한 이론화는 역사의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이 자신의 분야의 역사를 정리하여 『의사학』에 게재한 글들은 이론화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8; 14; 19; 45; 46; 47; 48; 49; 50; 76).

4. 맺음말

1992년 발간된 『의사학』은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발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의사학』을 통해 그리고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된 연구를 통해 근대 한국의 의학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경로를 구성하는 의학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교육, 병원, 인물, 질병 등 의학사의 주요 주제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고 있다.

근대 한국 의학을 구성하는 각 주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계속적으로 산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의학사의 연구 시각이나 분석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학사는 역사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이 성취한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왔다. 그 결과 한국 근대 의학사를 서양의학의 이식이 아닌 수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의학의 시술 주체를 넘어 소비자가 바라본 의학을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권력이 혹은 식민권력이 자신의 지배를 안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의학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서술도 이루어졌다.

이제는 의학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고민들을 축적하고 정리하여 다른 분야의 학문에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의학이 근대 한국의 변화를 추동한 주요 분야라고 할 때, 그 분야를 통해 밝혀진 성과들은 다른 분야를 연구할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학의 근대성에 대한 고민은 한국의 근대성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각과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하여 실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실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론은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게 된 배경에도 『의사학』 20년의 성과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주제어 : 『의사학』, 서양의학, 한의학, 식민 지배, 근대성

투고일 2010. 6. 7.

심사일 2010. 6. 20.

계재확정일 2010. 6. 21.

한국 근대 관련 『醫史學』 수록 논문

1. 기창덕, 「서양의학교육의 효시」, 『醫史學』 1-1, 1992.
2. 여인석, 이규창, 「한성의사회에 대하여」, 『醫史學』 1-1, 1992.
3. 서흥관, 황상익, 채종일, 「한국 장내기생충 감염의 시대적 변천과 그 요인에 대한 관찰: 1913년에서 1989년까지」, 『醫史學』 1-1, 1992.
4. 기창덕,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醫史學』 1-1, 1992.
5. 박형우, 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醫史學』 1-1, 1992.
6. 기창덕, 「국가에 의한 서양의학교육: 1895년부터 1945년까지」, 『醫史學』 2-1, 1993.
7. 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醫史學』 2-1, 1993.
8. 서흥관, 김창엽, 「의학용어의 변화: 조선의보(1934-6)와 대한의학협회지(1985)에 나타난 질병명을 중심으로」, 『醫史學』 2-1, 1993.
9. 김상덕, 「여자의학강습소: 1928년에서 1938년까지」, 『醫史學』 2-1, 1993.
10. 기창덕, 「사립여자의학교육」, 『醫史學』 2-1, 1993.
11. 전종휘, 「전날의 마마와 그 예방」, 『醫史學』 2-2, 1993.
12. 기창덕, 「평양에서의 의학교육: 1890년에서 1945년까지」, 『醫史學』 2-2, 1993.
13. 기창덕, 「대구에서의 의학교육(1890-1945)」, 『醫史學』 2-2, 1993.
14. 지제근, 「한국의 병리학, 그 도입과 정착」, 『醫史學』 2-2, 1993.
15. 기창덕, 「개명기의 동의와 동의학강습소」, 『醫史學』 2-2, 1993.

16. 서홍관, 「우리나라 근대의학 초창기의 교과서들」, 『醫史學』 3-1, 1994.
17. 황상익, 기창덕, 「朝鮮末과 日帝 强占期 동안 來韓한 西洋 宣敎醫療人의 활동 분석」, 『醫史學』 3-1, 1994.
18. 奇昌德, 「의학교육의 현대화 과정」, 『醫史學』 3-1, 1994.
19. 李符永, 「日帝下 精神科 診療와 그 變遷: 朝鮮總督府醫院의 精神科 診療(1913-1928)를 中心으로」, 『醫史學』 3-2, 1994.
20. 奇昌德, 「醫學系의 海外 留學生」, 『醫史學』 3-2, 1994.
21. 鄭遇悅, 「東武 李濟馬의 哲學과 醫學思想」, 『醫史學』 3-2, 1994.
22. 기창덕, 「朝鮮時代末의 急性傳染病과 醫療機關」, 『醫史學』 4-1, 1995.
23. 李忠浩, 「同仁會의 醫師敎育活動」, 『醫史學』 4-1, 1995.
24. 이종찬, 기창덕, 「한국에서 공중위생의 제도화 과정, 1876-1910년」, 『醫史學』 4-1, 1995.
25. 기창덕, 「조선시대말의 급만성전염병과 의료기관 3, 두창과 증두사」, 『醫史學』 4-2, 1995.
26. 이종찬, 기창덕, 「개화기 시대 서양의학의 도입과 전통의학의 몰락, 1876-1910년」, 『醫史學』 5-1, 1996.
27. 奇昌德, 「海觀 吳兢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醫史學』 5-2, 1996.
28. 신동원, 황상익, 「조선말기(1876-1910) 근대보건의료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醫史學』 5-2, 1996.
29. 奇昌德, 「朝鮮時代末 開明期의 醫療(1)」, 『醫史學』 5-2, 1996.
30. 奇昌德, 「朝鮮時代末 開明期의 醫療(2)」, 『醫史學』 6-1, 1997.
31. 이꽃메, 황상익, 「우리나라 근대 병원에서의 간호: 1885-1910」, 『醫史學』 6-1, 1997.
32. 奇昌德, 「우리나라 黎明期(1876-1945)의 皮膚科學」, 『醫史學』 6-1, 1997.
33. 이종찬, 「서재필의 생애와 사상: 근대적 공중위생론의 대중적 전파자」, 『醫史學』 6-2, 1997.
34. 奇昌德, 「韓國泌尿器科學史(1910-1945)」, 『醫史學』 6-2, 1997.
35. 여인석, 「一山 金斗鍾 선생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7-1, 1998.
36. 황상익, 「舊韓末 近代西洋醫學의 수용 과정 연구(1)」, 『醫史學』 7-1, 1998.
37. 여인석, 박윤재, 이경록, 박형우, 「구리개 제증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과정」, 『醫史學』 7-1, 1998.
38. 朴潤栽, 申東煥, 「日帝下 私立 避病院 設立運動 研究」, 『醫史學』 7-1, 1998.
39.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서적: 제증원·세브란스의학교에서 간행된 의학교과서」, 『醫史學』 7-2, 1998.
40. 박형우, 「대의 김필순」, 『醫史學』 7-2, 1998.
41. 기창덕, 「한의학의 역사」, 『醫史學』 8-1, 1999.
42. 박형우, 박윤재, 여인석, 김일순, 「제증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1885-1908)」, 『醫史學』 8-1, 1999.
43. 김두희, 김재식, 「동인의원의 정체와 의문화영향 소고」, 『醫史學』 8-1, 1999.
44. 서홍관, 신좌섭, 「일본 인종론과 조선인」, 『醫史學』 8-1, 1999.
45. 맹광호, 「한국의 공중보건 1세기」, 『醫史學』 8-2, 1999.
46. 이종찬, 「20세기 우리나라 보건정책과 제도: 사회사적 이해」, 『醫史學』 8-2, 1999.
47. 전세일, 예병일, 「한국 외과학의 지난 100년」, 『醫史學』 8-2, 1999.
48. 이부영, 「한국에서의 서양정신의학 100년(1899-1999)」, 『醫史學』 8-2, 1999.
49. 장우열, 「한의학 100년 약사」, 『醫史學』 8-2, 1999.
50. 이나미, 이부영,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1)」, 『醫史學』 8-2, 1999.
51. 박형우, 이경록, 왕현중, 「재동 제증원의 규모와 확대 과정」, 『醫史學』 9-1, 2000.
52. 황상익, 「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常虛 劉錫昉)」, 『醫史學』 9-1, 2000.

53. 신동원, 「한국 의료윤리의 역사적 고찰」, 『醫史學』 9-2, 2000.
54. 김동건, 김태수, 「제증원 2대 원장 헤론(John W. Heron, M. D.)의 생애」, 『醫史學』 9-2, 2000.
55. 박형우, 이태훈, 「고종의 시의 독일의사 분취(Richard Wunsch)」, 『醫史學』 9-2, 2000.
56. 김영경, 박형우, 노재훈, 「제증원의학당 입학생의 신분과 사회진출」, 『醫史學』 10-1, 2001.
57. 이규식, 「일제의 농촌 침탈과 농촌위생연구소」, 『醫史學』 10-1, 2001.
58. 왕현중, 이경록, 박형우, 「구리개 제증원의 규모와 활동」, 『醫史學』 10-2, 2001.
59. 조우현, 박종연, 박춘선, 「우리나라 근대 병원의 등장」, 『醫史學』 11-1, 2002.
60. 이종찬, 「의와 오리엔탈리즘: 개화기 조선을 중심으로」, 『醫史學』 11-1, 2002.
61. 신규환, 서흥관, 「한국 근대 사립병원의 발전과정」, 『醫史學』 11-1, 2002.
62. 여인석, 박윤재, 이경록, 박형우, 「한국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 한말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醫史學』 11-2, 2002.
63. 이규식, 「유일준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12-1, 2003.
64.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醫史學』 12-2, 2003.
65. 박윤재, 「일제 초 의학교육기관의 정비와 임상사사의 양성」, 『醫史學』 13-1, 2004.
66. 여인석, 「세브란스의전 연구부의 의학연구 활동」, 『醫史學』 13-2, 2004.
67. 신재의, 「일제강점기의 치의학과 그 제도의 운영」, 『醫史學』 13-2, 2004.
68. 이규식, 양정필, 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13-2, 2004.
69. 신영전, 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春谷 楊奉根 1897-1982)의 생애」, 『醫史學』 14-1, 2005.
70. 이경록, 「이제마의 의학과 그 시대적 성격」, 『醫史學』 14-2, 2005.
71. 김호, 「醫史學者 三木榮의 생애와 朝鮮醫學史及疾病史」, 『醫史學』 14-2, 2005.
72. 여인석, 「한말과 일제시기 선교의사들의 전통의학 인식과 연구」, 『醫史學』 15-1, 2006.
73. 金南一,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醫史學』 15-1, 2006.
74. 이꽃메, 「한신광(韓晨光): 한국 근대의 산파이자 간호부로서의 삶」, 『醫史學』 15-1, 2006.
75. 신영전, 「우생(優生)에 나타난 1930년대 우리나라 우생운동의 특징: 보건사적 함의를 중심으로」, 『醫史學』 15-2, 2006.
76. 정원용, 「이나미, 이부영,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2) 일제 강점기의 정신의학 교육(1910-1945)」, 『醫史學』 15-2, 2006.
77. 양정필, 「한말-일제초 근대적 약업 환경의 대두와 한약업자의 대응: '매약' 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醫史學』 15-2, 2006.
78. 박윤재, 「김창세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醫史學』 15-2, 2006.
79. 이꽃메, 「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용」, 『醫史學』 15-2, 2006.
80. 박형우, 홍정완, 「박서양(朴瑞陽)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醫史學』 15-2, 2006.
81. 이규식, 「기용숙의 연구와 생애 - 콜레라 연구를 중심으로」, 『醫史學』 16-1, 2007.
82. 여인석, 「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 『醫史學』 16-2, 2007.
83. 천명선, 양일석, 「1918년 한국 내 인플루엔자 유행의 양상과 연구 현황: 스코필드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醫史學』 16-2, 2007.
84. 이방원, 「박 에스더(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醫史學』 16-2, 2007.
85. 이방원, 「보구여관(保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醫史學』 17-1, 2008.
86. 여인석, 「세브란스 정신과의 설립과정과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맥라렌과 이종철의 활동을 중심으로」, 『醫史學』 17-1, 2008.
87.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 지배」, 『醫史學』 17-1, 2008.

88. 홍정완, 박형우, 「주헌축(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醫史學』 17-1, 2008.
89. 이규식, 「전라북도의 서양의학 도입과정」, 『醫史學』 17-1, 2008.
90.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인류학 연구」, 『醫史學』 17-2, 2008.
91. 박형우, 홍정완, 박운재, 「윤치왕의 생애와 의료 활동」, 『醫史學』 17-2, 2008.
92. 박윤희, 홍태숙, 신규환, 임선미, 김희곤, 「일제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醫史學』 17-2, 2008.
93. 신규환, 「개항, 전쟁, 성병: 한말 일제초의 성병 유행과 통제」, 『醫史學』 17-2, 2008.
94. 신영진, 박세홍, 「노기순(盧基舜)의 생애: 한국 보건의료의 변경사」, 『醫史學』 18-1, 2009.
95.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蔘業)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醫史學』 18-2, 2009.
96. 최규진, 황상익, 김수연, 「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劉相奎)의 삶의 궤적」, 『醫史學』 18-2, 2009.
97. 신규환,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배: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을 중심으로」, 『醫史學』 18-2, 2009.

참고문헌

- 고미숙, 「독립신문에 나타난 ‘위생’ 담론의 배치」,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 金斗鍾, 『韓國醫學史 全』 (探究堂, 1966).
- 金承台, 「日本을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과 그 性格」, 『國史館論叢』 6, 1989.
- 金亨錫, 「韓末 韓國人에 의한 西洋醫學 受容」, 『國史館論叢』 5, 1989.
-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a).
-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b).
- 奇昌德, 『韓國開化期醫文化年表』, (아카데미아, 1999).
- 기초의학협의회, 『한국 기초의학 발전사』 (한국의학원, 2008)
-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2007.
- 김예림, 「전시 오락정책과 ‘문화’ 로서의 우생학」, 『역사비평』 73, 2005.
- 김운성, 「몸, 질병, 근대성: 근대의학과 개항기 한국사회」, 『한신인문학연구』 5, 2004.
- 김정화, 이경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조선 양의의 사회적 성격」, 『사회와 역사』 70, 2006.
- 大韓感染學會, 『韓國傳染病史』 (군자출판사, 2009).
- 박운재, 「1910년대 初 日帝의 페스트 防疫活動과 朝鮮 支配」,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해안, 2000).
- 박운재, 「統監府의 醫學支配政策과 同仁會」, 『東方學志』 119, 2003.
- 박운재, 「한말·일제 초 방역법규의 반포와 방역체계의 형성」,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일상 생활』 (해안, 2004).
- 박운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5).
- 박운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東方學志』 139, 2007a.
- 박운재, 「일제하 의사계층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 『역사와 현실』 63, 2007b.
- 박운재,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c.

-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47, 2008.
-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1, 2009.
- 범연추(范燕秋), 「제국정치와 의학: 일본 전시총독원하의 대북제국대학 의학부」, 『사회와 역사』 76, 2007.
- 신규환, 「병존과 절충의 이중주: 일제하 한의학의 서양의학 인식과 수용」, 『역사교육』 101, 2007.
-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11-1, 1989.
- 신동원, 「공립의원 제증원」, 『한국문화』 16, 1995.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 계몽된 근대인가, ‘근대’의 ‘계몽’인가」,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0, 2002.
-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운퍼블리싱, 2004).
-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국사편찬위원회, 2005).
- 慎蒼健,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76, 2007.
- 여인석, 「조선 개항 이후 韓醫의 動態」, 『東方學志』 104, 1999.
- 이경록 외, 「광혜원의 개원과 제증원으로서의 개칭과정」, 『延世醫史學』 2-4, 1998.
- 李光麟, 「濟衆院 研究」, 『韓國 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한울아카데미, 2002).
- 李萬烈, 「基督教 宣敎 初期의 醫療事業」, 『東方學志』 46-47-48, 1986.
- 李萬烈, 「韓末 美國系 醫療宣敎를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 『國史館論叢』 3, 1989.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 이승원, 「근대적 신체의 발견과 위생의 정치학」,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 이이지마 와타루, 「의료위생사업의 제도화와 근대화」, 『동아시아와 한일교류』 (아연출판부, 2008).
- 이주연,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해안, 2006).
- 李春蘭, 「韓國에 있어서 美國宣敎醫療 活動(1884-1934)」, 『梨大史苑』 10, 1972.
- 李忠浩, 『日帝統治期 韓國醫師教育史研究』 (國學資料院, 1998).
- 정근식, 「일제하 서양 의료 체계의 헤게모니 형성과 동서 의학 논쟁」,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0, 1996.
- 정근식,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일제하 나(癩)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1, 1997a.
- 정근식,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 1997b.
- 정혜경·김혜숙,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 구현된 위생정책」,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 신보』 (두리미디어, 2005).
- 趙英烈, 「西歐諸國을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 『國史館論叢』 9, 1989.
-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조형근, 「일제의 공식의료와 개신교 선교의료간 헤게모니 경쟁과 그 사회적 효과」, 『사회와 역사』 82, 2009.
-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증원-세브란스」, 『역사비평』 38, 1997.
- 황상익, 「역사 속의 학부(學部) “의학교”, 1899-1907」,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3).

PARK Yunjae : The Trend and Prospect of Studies in the Modern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松本武祝, 「植民地朝鮮における衛生・醫療制度の改編と朝鮮人社會の反應」, 『歴史學研究』 834, 2007.
辛圭煥, 「20世紀前半, 京城と北京における衛生・醫療制度の形成と衛生統計」, 『歴史學研究』 834, 2007.
愼蒼健, 「霸道に抗する王道としての醫學」, 『思想』 905, 1999.

Park, Yunjae, “Anti-Cholera Measures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the Reaction of Koreans in the Early 1920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8-4, 2005.

Park, Yunjae, “The 1927 ‘Emetine Injection Incident’ in Colonial Korea and the Intervention of Korean Western-Trained Doctors,” *Korea Journal* 50-1, 2010.

Sihn, Kyu-hwan, “Unexpected Success: The Spread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1910-1911,” *Korea Journal* 49-2, 2009.

- ABSTRACT -

The Trend and Prospect of Studies in the Modern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PARK Yunjae*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published in 1992 provides spaces for publication to medical historians who have been growing increasingly since the 1990s, thereby stimulating studies in the modern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Through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and other journals, the course through which medicine in Korea in the modern times has been formed and the content of medicine that composed that course are elucidat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various research tend to posit the view that the modern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evolves through a process of accommodation with Western medicine rather than being a complete transplantation of Western medicine, and describes medicine as it is viewed by consumers rather than the operators of medicine. How government power or colonial power utilized medicine in order to stabilize their rule is also a common theme.

Now, it is come time to interrogate the viewpoints and analytical methods of medical history studies. Given that medicine is one area that drives changes in Korea in contemporary times, the outcomes obtained through this field can be sufficiently utilized when studying other areas. For instance, agony over the modernity of missionary medicine being studied recentl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the modernity of Korea. However, the importance of substantiation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2
Tel: 82-2-2228-2473 / Fax: 82-2-393-1885
E-mail: wowbbona@hanmail.net

PARK Yunjae : The Trend and Prospect of Studies in the Modern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ories not supported by thorough documentary evidence are weak.

Key Words :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Western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lonial Rule, Modernity